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23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지역 경기 살려야”…지방은행 대출 증가한도 높인다
매일경제 https://zrr.kr/MHKeR4

금융당국이 지방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들에 4~5%라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부여
인터넷은행들에도 시중은행(1% 미만)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계대출 관리 방침을 전달한 만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여력은 올해도 더욱 줄어들 전망

지배구조 개선안 내달로 연기… 국민연금 위한 '5%·10%룰' 완화 안한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h5qMrW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절차 및 이사회의 독립성, 경영진 보수체계 개선안 등을 법안으로 상향할지 세부안 미확정에 따라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
금융위원회는 다만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기한 '5%룰' '10%룰' 완화에 대해 법안개정은 별도로 하지 않을 예정

구조조정 직전 기업 5000곳…코로나 때의 1.6배
서울경제 https://zrr.kr/QQaLoT

국내 은행들이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부실 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분류한 업체는 총 5058곳으로, 1년 새 21.4%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전쟁에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인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저축은행 못지 않은 카뱅 예금금리
한국경제 https://zrr.kr/ZhpuOJ

카카오뱅크는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연 3.0%에서 연 3.1%로, 케이뱅크도 예금 금리를 연 2.86%에서 연 3.1%로 인상
대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수신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들인 뒤, 플랫폼의 다른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전략

코스피 사상최고에 '빚투'도 과열조짐…증권사 신용융자 제한조치
SBS Biz https://zrr.kr/gpjw2t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 속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빚투'가 다시 과열될 조짐이 보이자 증권사들이 제동
빚투의 지표로 보는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34조원을 돌파

한투 보험사 인수의지 확인…손보 출신 임원 영입, 생보 보다 손보?
머니투데이 https://zrr.kr/ssqQtE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본입찰에 단독 입찰하면서 보험업 진출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공식화
보험업계에서는 손보사가 수익성, 성장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며, 증권·자산운용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한투가 손보사를 가질 경우 투자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도 클 것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상품 다음 달 출시
국민일보 https://zrr.kr/GoQibe

5부제에 참여한 차량에 한해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이 다음 달 출시
애초 당정은 차보험료율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손해보험업계가 관련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특약 상품을 내놓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판단

금융당국,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추진
헤럴드경제 https://zrr.kr/UcSLjS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확대를 추진
보험업권과 연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지역 금융과 협력해 소액신용대출과 적금 등 복합지원 전용 상품을 시범 출시할 방침

’미국판 배민‘ 도어대시, ‘사용자-배달기사-가맹점’ 간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
이데일리 https://zrr.kr/VrZn5o

미국 최대 배달앱인 도어대시가 배달앱 사용자와 배달기사인 ‘대셔’, 가맹점들을 연결하는 결제 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이를 위해 미국 결제공룡인 스트라이프가 만든 금융 특화 블록체인 템포와 협력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 "디지털자산, 이미 美금융산업 구조 일부"
이데일리 https://zrr.kr/SQGGLt

Fed 의장 지명자인 케빈 워시가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디지털자산은 이미 미국의 금융산업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친(親)디지털자산 성향을 표출
특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할 순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정책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